

HEADLINE NEWS

시민들을 위한 「비상사태 대비 안내서」 발간 (뉴욕)

미국 뉴욕시는 각종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시청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시민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7개국 언어로 기술된 「비상사태 대비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시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비상사태와 그에 따른 준비 및 대처방법을 수록한 16쪽 분량의 소책자로서,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실내 대피, 재난 대피소, 공공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일반적인 비상사태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다. 2장에서는 기상 재난, 화재, 지진, 일산화탄소 및 방사능 노출, 건물 붕괴나 폭파, 위험물질이나 화학물질 유출, 테러 등 각종 위험별로 대처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3장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대처요령, 재난피해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법, 부모와 가족을 위한 비상사태 대비계획 수립방법, 애완동물 소유자를 위한 도움말, 지하철 내에서의 대처법, 방재기관을 돕는 방법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내책자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1쪽짜리 비상사태 대비 권고사항, 비상사태 발생시 참조카드, 비상사태 발생시 시청에 연락하는 방법 등도 수록되어 있다.

(www.nyc.gov/html/oe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도심 및 낙후지역 재개발 및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추진 (런던)

도시환경

- ② 소음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시소음지도 '작성 추진 (파리)

도시교통

- ③ 교통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이용자 편의 제고 (뉴욕주)
- ④ 도심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전자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추진 (영국: 에든버러)
- ⑤ 도심 주차 정보 제공 웹사이트 확대 개편 (위스콘신주 밀워키시)
- ⑥ '운전 중 핸드폰 통화' 적발시 벌금 부과 (런던)
- ⑦ 애완견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부과 (베를린)

사회복지·문화

- ⑧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위해 청소년 &가족 센터 '설립 (보스턴)

행재정

- ⑨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치·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가이드' 시험 운영 (암스테르담)
- ⑩ 대규모 행사 주최측에 특별 교통통제 관리비용 유발 부담금' 부과 추진 (시카고)
- ⑪ 인터넷을 통해 대형트럭 통행허가증 발급 (위싱턴주)
- ⑫ '가라오케 포장마차' 강제철거 추진 (오사카)
- ⑬ 애완견 온라인 등록 시행 (샌프란시스코)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① 도심 및 낙후지역 재개발 및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추진 (런던)

영국 런던시는 최근 경제부흥으로 인한 인구 증가 및 독신인구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부족현상이 심화되자,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시평균주택가격은 영국 전체평균의 2배인데, 중·저소득층은 높은 주택가격 때문에 시에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새로 조성되는 택지의 50%에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가격의 주택 건설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모든 택지에 50%의 목표량을 부과하면 개발업자에게 큰 부담이 주게 되어 주택 건설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목표량을 다르게 책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런던 대도시권 인구분산정책과 런던시 외곽의 신도시 건설로 인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도시 경쟁력 향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도시 건설을 지지하는 대신 낙후지역 및 저개발지역을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www.uk.or.kr/cyber/list.html?dno=4380&cid=5&lang=k&umode=graphic&mid=m65&keyfield=&page=1&key=&ano=1&mode=detail&tno=89&cmonth=11&year=2003&opta=)

② 소음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시소음지도’ 작성 추진 (파리)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도시에 사는 유럽 국가들은 최근 소음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EU 회원국 도시들의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2007년 완성 예정인 이 지도는 인구 25만 명 이상의 도시들과 주요 도로, 철도, 공항 주변에서 자동차와 항공기, 열차가 만들어내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컴퓨터로 잡아내 X선 필름처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파리시는 지난 5월부터 도로 교통소음을 무지개빛깔로 표시한 낮시간대 지도를 인터넷에 공개한 데 이어, 내년 3월에는 야간 소음을 3차원 입체영상으로 표시한 지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WHO에 따르면, EU 주민의 약 40%가 55dB 이상의 도로교통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30% 이상이 야간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아울러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걸릴 수 있다. (Metro, 2003. 12. 9)

③ 교통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이용자 편의 제고 (뉴욕주)

미국 뉴욕주 교통부는 교통관련기관의 업무를 일원화해 업무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이용자의 편의 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 예로, 상업용 차량의 통행권 발급과 관련해 관할도로에 따라 통행권 발급기관이 다른 데서 오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업용 차량 통행권 발급시스템을 최근 일원화했다. 또한, 스마트카드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나의 카드로 대중교통요금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지불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정보 제공도 여러 지점의 도로, 교량 등에서 산출되는 교통 및 기상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하여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원화는 교통체계의 안전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lbany.bizjournals.com/albany/stories/2003/11/17/story4.html)

④ 도심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전자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추진 (영국: 에든버러)

영국 에든버러(Edinburgh)시는 도심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도심 곳곳에 전자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 전자안내표지판이 주요 건물 및 방문객이 많이 찾는 명소에 대한 길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지점의 주차장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장을 찾아 헤매는 불필요한 통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차장 이용률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 전자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약 2백만 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ww.edinburghnews.com/index.cfm?id=1297302003)

5] 도심 주차정보 제공 웹사이트 확대 개편 (위스콘신주: 밀워키市)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Milwaukee)市는 도심지역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최근 확대 개편했다. 'Westown Association'에 의해 2001년에 시범적으로 개설된 이 웹사이트는 그동안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최근 도심지역 주차정보 입력을 마쳤다. 이 웹사이트는 도심 내 주요 목적지별로 이용 가능한 주차장의 위치와 주차요금 및 주차규제정보 등을 지도를 이용하여 제공하게 된다. 이 웹사이트는 도심 방문자의 통행계획 수립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milwaukee downtown.com/news/articles/ParkMilwaukee.html)

6] '운전 중 핸드폰 통화' 적발시 벌금 부과 (런던)

올해 12월 1일부터 영국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0파운드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주행 중에는 모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량에 장착된 Hands-free 전화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화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한 조사 결과,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당국의 홍보 부족이라는 비난도 거세고 일고 있다. (Metro, 2003. 11. 19)

7] 애완동물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부과 (베를린)

독일 베를린市에선 개들도 2004년도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市대중교통기관인 베를린운송공사는 최근 대중교통수단 요금 조정을 하면서 내년 4월부터 개들도 어린이 요금에 해당되는 1.4유로를 지불해야 승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만약 개들이 승차권 없이 버스, 지하철, 전차 등에 무단 승차한 것이 적발되면 개주인은 벌금으로 4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연합뉴스, 2003. 11. 27)

8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위해 ‘청소년 & 가족 센터’ 설립 (보스턴)

미국 보스턴시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제공되던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하나로 모아 한 건물 안에서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청소년 & 가족 센터’를 설립했다. 시가 이 센터를 설립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서비스 중복 제공을 없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센터는 청소년개발과, 유아보호과, 방과후·졸업후 생활과, 교육·스포츠과, 체련단련과 등 5개 과로 구성되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개발, 유아 보호 및 탁아서비스 제공, 방과후 및 여름캠프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공동체 조직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 노인을 위한 교육·여가·여행 프로그램 제공, 평생 교육 서비스 제공, 시의 스포츠 및 여가 프로그램 계획 및 감독, 시 소재 40개의 커뮤니티 센터와 20개의 수영장 관리, 비영리 지역사회단체 활동에 자원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www.cityofboston.gov/2to6/aboutbcyf.asp)

9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치·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 가이드’ 시험 운영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시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정보시스템 「Timespots」를 3개월간 시험 운영할 계획이다. 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의 이 컴퓨터는 방문객이 어디에 있더라도 원하는 위치정보를 제공해준다. 외국인 방문객들이 그들의 위치와 개인적 관심사, 예를 들어, 건축, 미술, 역사에 대해 입력하면, 컴퓨터가 근처에 있는 흥미로운 행사, 시설, 유적지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www.amsterdam.nl)

대규모행사 주최측에 ‘특별 교통통제·관리비용 유발부담금’ 부과 추진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대규모 행사 개최시 특별 교통통제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행사 주최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이 조례는 1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연고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스포츠구단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04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적절한 비용 산정을 위해 실제로 교통경찰 등이 투입되어 교통통제에 소요된 시간 등을 측정할 계획이다. 市는 대규모 운동경기 개최시 경찰력 투입 등으로 그동안 연간 4백만~5백만 달러가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市는 아울러 대규모 행사 개최시의 교통관리를 전담할 ‘교통통제관리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www.chicagotribune.com/news/local/chi-0312030100dec03,1,6058891.story?coll=chi-news-hed)

인터넷을 통해 대형트럭 통행허가증 발급 (워싱턴州)

미국 워싱턴州 교통부는 대형트럭의 통행허가증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Oversize/Overweight Permit Information」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州교통부 내 상업용 차량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며, 미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발급을 통해 그동안 통행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담당부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관련된 서류 작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워싱턴州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에 가입한 인접 12개 州의 통행시에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ww.wsdot.wa.gov/news/2003/nov/e-snoopi.htm)

④ '가라오케 포장마차' 강제철거 추진 (오사카)

최근 일본 오사카시는 텐노우지(天王寺) 공원 내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가라오케 포장마차 업주들에게 강제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인 대집행명령서를 교부했다. 대집행명령서에 따르면, 철거예정일은 12월 15일이고, 철거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가 포장마차 시설과 가라오케 설비를 철거·보관하며, 약 30만~35만 엔 정도의 철거비용을 업주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업주들은 국토교통성을 방문,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라 철거명령에 대한 불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사청구제기서와 집행정지제기서를 제출했다.

텐노우지 공원의 포장마차는 속칭 '푸른 하늘 가라오케'로 불리는데, 20년 전부터 폭 8m의 보행자 전용도로상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포장마차 1개당 1일 평균 30~40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이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보도정비공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포장마차가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업주들에게도 구두로 자진철거를 권고해왔다. 이에 대해 포장마차 업주들은 불법을 오랜 세월 방치한 시에 책임이 있으며, 생존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時事通信·共同通信·東都新聞, 2003. 11. 27 & 2003. 12. 8)

④ 애완견 온라인 등록 시행 (샌프란시스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는 애완견의 온라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모든 거주자들은 태어난 지 4개월 이상 된 개를 자신이 소유하거나 기르는 경우에는 시보건당국에 애완견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개를 소유하거나 기르는 것은 불법이며, 소정의 등록 기간이 만료될 경우, 만료일 30일 전에 새로 등록을 해야만 한다. 1년 기간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24달러, 2년은 45달러이며, 12개월 이상 된 개에 한하여 3년은 66달러이다. 애완견 등록은 광견병과 같은 질병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fgov.org/site/acc_page.asp?id=5476)